

물가 못 따라가는 월급 명목-실질 71만원 격차

고용부, 8월 사업체노동력 조사
7월 명목임금 전년대비 2.5%↑
실질임금 최근 4개월 연속 감소
상용·임시일용직 채용 큰 폭 증가

국내 명목임금과 실질임금 간 격차가 월 70만 원대로 벌어졌다. 올해 7월 명목임금은 전년동월에 비해 2.5% 늘어난 데 반해 실질임금은 외려 0.3% 줄었다. 소비자물가를 반영해 산정하는 실질임금은 최근 4개월 연속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가 30일 발표한 '8월 사업체노동력조사' 및 4월 시도별 임금·근로시간조사'에 따르면 8월 기준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 종사자 수는 2069만 명으로 집계됐다. 1년 전보다 1.1% (23만3000명) 증가했다.

종사상위별로 상용직이 0.5%, 임시일용직이 7.4% 늘었다. 이들이 지난 7월 명세서상 받은 임금의 평균치는 431만 6000원으로, 1년 전 같은 달과 비교해 2.5% 증가했다.

반면 실질임금으로 환산 시 전년동월 (361만5000원) 대비 0.3% 줄어든 360만 4000원에 그쳤다. 명목-실질 간 괴리가 71만2000원에 달한다.

실질임금은 넉 달째 내림세를 보였다. 올해 4월 -1.0%에 이어 5월 -1.4%, 6월 -0.1% 7월 -0.3% 등이다. 앞선 1분기역시 연말정산 세액 환급이 반영된 2월(+15.5%)을 제외하면 부진한 흐름을 보인 바 있다. 1월 -9.4%, 3월 +0.1%였다.

명목임금만 보면 7월 상용근로자는 3.4% 늘어난 463만3000원, 임시일용근로자는 2.6% 줄어든 173만6000원을 받았다.

8월 기준 종사자 수가 증가한 산업은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4.7%), 금융·보험업(+3.3%),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2.1%) 등으로 집계됐다.

반면 도매·소매업(-1.4%), 예술·스포츠·여가관련서비스업(-2.0%), 정보통신업(-0.1%) 등에서는 감소했다.

전체 산업 가운데 종사자 수 비중 (18%)이 가장 큰 제조업에선 0.5% (+1만 7000명) 증가했다.

제조업 중 종사자가 증가한 부문은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통신장비(+8000명), 기타운송장비(+6000명), 산업용기계·장비수리업(+5000명) 순이었다. 감소 부문은 고무·플라스틱제품(-4000명), 비금속광물제품(-2000명), 1차금속(-2000명) 등이었다.

비제조업에서는 사회복지서비스업이 7만8000명, 보건업이 4만4000명, 보험업이 1만9000명 늘었다. 반면 소매업(-3만 8000명), 종합건설업(-1만8000명), 스포츠·오락관련서비스업(-9천명) 등에선 줄었다.

8월 전체 채용인원은 94만8000명이었다. 이 중 상용직은 32만5000명으로 1년 전보다 11.5% 증가, 임시일용직은 62만2000명으로 21.6% 증가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metroseoul.co.kr



“AI시대, 중견기업 중심 성장사다리 필요”

중견련, 81건 입법 개선과제 전달
근로시간제 등 규제 해소 요청도

AI 혁명을 넘어 장기적인 성장 기반을 확보하려면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있는 중견기업 경쟁력을 높여 성장의 흐름을 연결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중견기업을 중심으로 기업 성장사다리를 강화할 혁신 입법에 국회가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등 8개 상임위원회에 이 같은 의견을 포함한 81건의 입법 개선 과제를 30일 전달했다고 밝혔다.

중견련은 “AI의 가치는 단기적 수익 창출을 넘어 근본적인 산업 체질을 강화함으로써 영속적인 발전의 계기를 제공하는 데 놓인다”며 “시설 투자, 전문인력 확보 등 원활한 AX를 뒷받침할 법·제도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성장할수록 규제가 증가하는 역설적 상황을 빠르게 해소함으로써 AI 혁명과 산업 전반의 성장사다리 강화를 연결하는 장기적 전망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견련은 AI 확산 속도를 감안할 때, 소재·부품·장비(소부장)를 비롯해 IC T, 바이오 등 산업 전반에 포진한 중견기업의 AI 도입·활용 법적 지원 근거 수립, 제조 중견·중소기업의 AX 축진을



위한 추가투자세액공제 도입, 전문인력 채용 세제 지원 확대 등 법·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조세특례제한법 상 중견기업 세제 지원 매출액 기준을 현행 3000억원 미만(R&D 등 5000억원 미만)에서 전체 중견기업으로 확대하고, 신용보증기금 내 중견기업 전용 계정을 신설하는 등 성장을 촉진할 세제·금융 지원 체계를 시급히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중견련은 불합리한 규제 해소에 국회가 앞장서 달라고 요청했다. ▲산업·직무 특성을 반영한 근로시간제 개선 ▲경제형별 합리화와 상법 상 경영판단 원칙 명문화 ▲노동조합법 쟁점사항 규제화 및 사용자 대항권 설정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개선 ▲고소득 전문직 근로시간 규제 예외 등 노동 분야를 포함해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 기준 및 유해화학물질 취급 도급 중복지 개선 ▲주주의 결권 제한 폐지 ▲적합업종 관련 제도 합리화 등을 대표적이다.

중견련 김현철 상근부회장(사진)은 “22대 후반기 국회가 기업 현장의 구체적인 수요를 수렴해 투자 혁신 촉진 법·제도 환경을 조성하는 데 힘써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승호 기자 bada@

리사 수, 한국 찾는다… AI 반도체 등 협력 모색

(AMD CEO)

반도체업계, 수 회장 참석 간담회 검토
삼성 등 주요기업 총수 회동 ‘이목집중’

리사 수 AMD 회장 겸 최고경영자(CEO·사진)가 7개월 만에 다시 한국을 찾는다. 국내 인공지능(AI) 반도체 기업과 정부 관계자 등을 만나 국산 신경망처리장치(NPU)를 비롯한 AI 반도체 생태계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할 전망이다.

30일 정부와 반도체 업계에 따르면 수 회장이 참석하는 업계 간담회가 오는 10월 8일 서울에서 열리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간담회에는 라벨리온과 답엑스, 모빌리트 등 국내 주요 NPU 기업 최고경영자(CEO)들이 참석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수 회장은 방한 기간 배정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의 만남도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방한에서는 지난 7월 과기정통부와 AMD가 체결한 AI 반도체 생태계 협력 양해각서(MOU)의 후속 논의가 이뤄



질 것으로 예상된다. 당시 양측은 AMD의 중앙처리장치(CPU)·그래픽처리장치(GPU)와 국산 NPU를 연계한 이기종 AI 컴퓨팅 인프라를 구축하고 실증하기로 했다. AMD와 국내 NPU 기업 간 협력을 통해 국산 AI 반도체의 활용 기반을 넓히겠다는 구상이다.

국내 AI 연구 거점 구축과 인재 양성도 협력 대상이다. AMD의 AI 컴퓨팅 자원과 소프트웨어 역량을 활용해 국내 기업과 대학, 연구기관의 공동 연구와 AI 반도체 소프트웨어 개발 등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삼성전자 등 국내 주요 기업과의 추가 협력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수 회장은 지난 3월 방한 당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전영현 삼성전자 대표이사 겸 DS부문장(부회장)을 각각 만나 반도체 사업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당시 AMD는 삼성전자와 차세대 AI 메모리·컴퓨팅 기술 협력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는 등 국내 기업들과 협력 범위를 넓혔다. 네이바와도 AI 인프라 협력을 위한 MOU를 맺고 AMD의 AI 가속기와 소프트웨어 기술을 활용한 AI 인프라 구축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수 회장은 이번 방한에서도 삼성전자 등 국내 주요 기업 총수들과의 만남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용 회장과 의 회동 성사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지만 만남이 이뤄질 경우 지난 3월 논의를 바탕으로 AI 반도체와 메모리 등 양사 간 협력 방안이 다시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

한편, 업계는 이번 방한을 계기로 AMD가 국내 NPU 기업부터 메모리 업체까지 국내 AI 반도체 생태계와의 접점을 한층 넓힐지 주목하고 있다.

/차현정 기자 hyeon@



metro

전영현 부회장 “삼성전자, 에이전트 AI 통해 새롭게 변화”

삼성 AI 포럼

AI 연구성과 실제 사업 활용 논의
연구개발·공장운영 등 적용 확대

삼성전자가 스스로 계획하고 실행하는 에이전트 인공지능(AI)을 반도체 연구개발과 공장 운영에 접목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개발 업무의 자동화를 확대하고 2030년까지 국내의 생산 공장을 AI 자율 공장으로 전환한다.

삼성전자는 30일 서울 서초사옥에서 ‘삼성 AI 포럼 2026’을 개최했다. 올해로 10회째인 포럼에는 국내 AI 대학원 교수·연구원 100명과 삼성전자 임직원 300명 등 400명이 참석했다. ‘에이전트 시프트: 지능에서 임팩트로’를 주제로 AI 연구 성과를 실제 사업에 활용하는 방안을 다뤘다.

전영현 삼성전자 대표이사 부회장은 영상 환영사에서 “에이전트 AI는 단순한 기술 혁신을 넘어 일하는 방식과 조직문화의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반도체를 담당하는 디바이스솔루션(DS)부문은 오후 ‘AI 전환(AX) 혁신’ 세션에서 연구개발에 AI를 안전하게 활용하



30일 삼성전자 서초사옥에서 열린 ‘삼성 AI 포럼 2026’ 행사 현장.

/삼성전자

고 업무 자동화를 확대하는 방안을 다룬다. 공식 프로그램에 따르면 엔트로피의 최상급 테크리드는 클라우드 기반 에이전트 시스템 설계를, 삼성전자 AX/PI센터의 한재준 마스터는 반도체 사업의 AI 전환 방향을 소개할 예정이다.

삼성전자의 AI 적용 범위는 생산 현장으로도 확대된다. 회사는 앞서 지난 3월 모바일 사업에서 축적한 AI 기술을 공장 운영에 활용하는 제조 혁신 전략을 발표했다. 자체 입고부터 출하까지 실제 공정을 가상공간에 구현하는 디지털 트윈을 도입해 생산 과정을 사전에 검증하고, AI 에이전트로 품질과 생산성을 높일 방침이다.

삼성전자는 설비 관리와 자재 운반, 조립을 맡는 로봇에도 AI를 접목한다. 작업 중 위험을 사전에 감지하고 설계 단계부터 안전장치를 반영할 계획이다.

업무 활용과 함께 AI 자체의 성능을 높이는 연구도 소개됐다. 란제이 크리슈나(Ranjay Krishna) 워싱턴대 교수는 스케치를 활용한 시각 추론으로 소형 모델의 로보틱스 AI 성능을 높이는 방안을 발표했다. 김윤형 삼성리서치 상무는 AI에 이진트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차세대 아키텍처를 다뤘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



metro

한화에어로, ‘재사용 기술 시연체’ 총조립 착수

우주 발사체 재사용 기술확보 속도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글로벌 우주수송 시장 공략을 위해 발사체 재사용 기술 확보에 속도를 낸다. 스페이스X가 로켓 재사용으로 발사 비용을 낮춘 만큼 한화에어로스페이스도 차세대발사체의 재사용 기반을 마련해 비용 경쟁력을 높일 계획이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우주발사체 재사용 기술 확보를 위한 ‘재사용 기술 시연체’ 총조립에 착수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과제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이 전체 연구를 주관하고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체계종합을 담당한다. 비즈

로넥스텍과 한양이엔지 등 국내 우주기업들도 참여한다. 2028년까지 기술 실증을 마치고 미국 스페이스X의 주력 발사체인 ‘팰컨9’처럼 발사체를 재사용하는 데 필요한 핵심 기술을 확보하는 것이 목표다.

시연체는 높이 12.2m, 직경 1.5m로 제작되며 추력을 조절할 수 있는 다단연소 사이클 터보펌프 엔진 1기가 탑재된다. 2028년 비행시험에서는 수직 이륙해 고도 500m까지 상승한 뒤 착륙 지점에 안정적으로 수직 착륙하는 과정을 약 90초 안에 수행한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이 과정에서 엔진 추력 조절과 자세 제어, 유도제어 등 발사체 재사용에 필요한

기술을 검증할 예정이다.

발사체 재사용은 우주 수송 비용을 낮추는 핵심 기술로 꼽힌다. 세계 최초로 재사용 발사체 상용화에 성공한 스페이스X는 팰컨9의 1단 로켓을 수십 차례 재사용하며 kg당 발사 비용을 크게 낮춘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발사체 하단부인 1단만 재사용해도 기존 대비 발사 비용을 대폭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이번 실증 결과를 토대로 2030년대 중반으로 예정된 차세대발사체의 1단 재사용에 필요한 기술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원관희 기자 wkh@



metro